■ 달서 푸른신문 2009년 2월 6일

<아니, 이렇게 '착한' 대리운전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하나대리운전 협약 체결
665-6688번 이용하면 1,500원씩 이웃돕기 후원
지역 쪽방 거주인, 북한 이주민 복지사업에 사용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

왼쪽부터 최은경 간사, 장민철 기획실장, 전인규 간사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마음으로 하는 특별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기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돕겠다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이 바로 기부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최근 음주 후 이용하게 되는 대리운전을 통해 후원금을 적립하는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665-6688)'이 대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은 대리운전 1회 이용시 1,500원의 후원금이 복지기금으로 후원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과 하나대리운전의 후원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장민철 기획실장은 "대리운전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1회 이용마다 1천원을 돌려주는 방식을 응용해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을 생각하게 됐다"며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정부지원금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민들의 후원 참여가 절실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장실장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하나대리운전을 직접 찾아가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벌이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대리운전 후원 사업을 제안했다. 하나대리운전 측은 "이런 뜻 깊은 사업의 파트너로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대답과 함께 흔쾌히 지정후원번호를 할당해 주었다. 이후 11월 말부터 지인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한달 평균 20여만원의 후원금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원금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센터인 대구쪽방상담소,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복지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대구쪽방상담소에 등록되어 있는 쪽방거주인은 1,400여명으로 중구와 서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쪽방거주인 및 노숙인을 위해 쪽방상담소는 매주 금요일 저녁 동대구역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사업, 자활 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구거주 북한 이주민은 2008년 말 현재 450여명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달서구에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일에서부터 컴퓨터교육, 학습도우미 등 2달 동안 기본 정착을 도와주고 있다.

장실장은 "음주 후 안전한 귀가와 함께 생활 속에서 지역의 저소득층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랑의 쪽방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께서 보내주시는 버리기엔 아까운 남성 신발이나 옷은 작업복으로 아저씨들에게 인기가 좋다"며 "라면 한 박스, 쌀, 애기용품 등 소량기부라도 환영한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박해옥 기자